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6.(수) **배포 즉시**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농업, AI가 농가별 '맞춤형 경영성적표' 낸다

- 5월부터 AI기반 경영성과 분석지원 현장 컨설팅 사업 본격 추진 -
- 제주DA 34종 데이터와 AI로 농가별 맞춤 경영개선 방안 제시 -

□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5월부터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'인공지능(AI) 기반 경영성과 분석지원 현장 컨설팅'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**

○ 이번 사업은 농가 및 필지단위의 경영정보와 제주농업 데이터허브인 '제주DA 플랫폼'의 34종 데이터(기상, 농업기술, 경영 등)를 연계해, 농업인별로 특화된 맞춤형 경영개선 방안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**지난해 농촌진흥청과 전국 3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, 평균 총수입이 7.7% 상승하고 경영비는 5.6%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.**

○ 제주에서도 5개 농가가 참여해 소득증대와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인했다.

○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관하되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240농가로 확대한다. 대상 농가는 필지단위 경영정보 조사(1,500필지)에 참여하는 농업인 중 필지 위치와 재배 작물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.

□ **이 사업은 제주DA 플랫폼의 인공지능(AI)이 농사 중간과 수확 후 두 차례에 걸쳐 분석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, 이를 전**

문가 현장 컨설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

○ 농사 중간에 제공되는 ‘코멘트형 자료’는 “지금 방제 시기가 적절한지, 비료는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은지” 등을 짚어주고, 수확·판매 후 제공되는 ‘컨설팅형 자료’는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내 상위 농가와 소득·비용을 비교해 “어디서 손해를 보고 있고, 다음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”를 리포트로 알려준다.

○ 대상 작물은 노지감귤, 월동무, 양배추, 당근, 마늘, 양파 등 제주 주요 6대 작물이다.

□ **컨설팅 리포트에는 농가별 상황에 맞는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추천 기능도 포함돼 경영개선의 실행력을 높인다.**

○ 과수·채소재배 및 병해충 전문가 6인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인공지능(AI)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컨설팅을 수행한다.

○ 농업기술원은 7월까지 ‘제주DA 플랫폼’의 인공지능(AI) 분석자료 자동생성 체계를 갖추고, 8월부터 전문가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.

□ **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이번 사업은 ‘제주DA’에 축적된 데이터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정보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”이라며 “사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된 체계를 기반으로 농가별 맞춤형 진단과 전문가 처방을 제공해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**